

西厓 柳成龍의 學門과 學脈

李 樹 健*

• 目 次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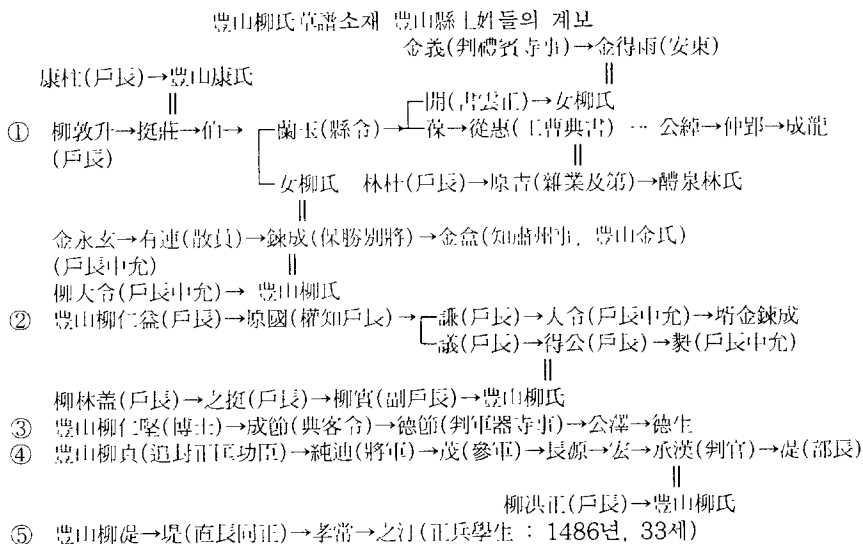
- | | |
|---------------|-----------|
| 1. 문제제기와 관련자료 | 3. 西厓의 學脈 |
| 2. 西厓의 학문세계 | 4. 맺은말 |

1. 문제제기와 관련자료

西厓 柳成龍(1542~1607)은 한국의 성리학을 집대성한 退溪 李滉의 高弟로서, 道學과 詞章 또는 문학과 吏才 및 體用을 겸비한 정치가 겸 經世學者였다. 그의 가문은 고려말기 안동부 屬縣 豊山縣의 土姓吏族¹⁾에서 士族으로 성장한 전형

* 嶺南大 國史學科 教授.

- 1) 李樹健, 「麗末鮮初 土姓吏族의 성장과 분화 —安東權氏를 중심으로—」(『李基白古稀紀念韓國史學論叢(上)』, 1994) 그런데 현존 「豊山柳氏草譜」, 「安東權氏成化譜」, 「金得雨戶田單子」 등에 의거 고려말조선초기 豊山柳氏를 비롯한 풍산현 土姓들의 職役과 혼인관계를 적기하면 다음과 같다



적인 在地土族이며, 안동을 중심한 軍威(조모향)·義城(외향)·선산·예천(선대의향) 등지의 신흥사족과 인척관계를 맺고 있었고, 아직 때문지 않고 보수화되지 않은 신진기예한 사람으로서 청렴강직한 가풍을 지니고 있었다.

西厓는 소년시절에는 父祖와 스승으로부터 촉망의 대상이었고, 때마침 陽明學이 중국에서 전래되자 가장 먼저 그 문집을 입수하면서 程朱學과 陸王學을 겸수할 수 있어 나중에 퇴계 못지 않게 양명학을 학문적으로 비판하였다. 20대 중반에 소·대과를 거쳐 淸要職으로 진출한 그는 新進士類의 기수로서 사림정치의 성립기에 크게 활약한 바 있으며, 30대와 40대에 정계와 학계를 장악한 사람이 東西 또는 南北으로 분당될 때는 동인 또는 남인을 영도하는 위치에 있어 어쩔 수 없이 당쟁의 와중에 휩쓸리게 되었다.

40대와 50대에는 고관요직에 올라 정국 담당자의 한 사람으로서 미증유의 대국난(임진왜란)을 당해 7년간의 戰時政局을 이끌어 나가지 않으면 안되었다. 특히, 그는 임란 직전에 李舜臣·權慄과 같은 인재를 천거하였고, 왜적의 복상에 따라 국왕을 호종, 평양과 의주에 이르는 도중에서도 戰守양면에 걸쳐 적절한 응급책을 제시했다. 그런가 하면 宣祖의 피란 방향을 관북(함경도, 尹斗壽 등이 적극 주장했음)쪽 보다는 관서쪽으로 돌리게 함과 동시에 끝까지 국토를 사수케 하여 동요된 민심을 수습했으며, 明軍接濟와 군량조달에 혼신의 정력을 쏟았다.

그러한 중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그의 일거일동은 늘 반대당인들의 비판과 공격의 표적이 되었다. 가령 「十萬養兵說」과 栗谷西厓를 두고 동·서인 사이에 그 공과와 인물의 우열을 논한다든지,²⁾ 己丑獄事에서 李潑일가와 崔永慶의 冤死문제를 두고 鄭澈과 西厓에 책임을 논한다든지,³⁾ 임란 후반기 北人들의 이른바 「主和誤國」에 대한 남·북인간의 논란⁴⁾ 등은 다분히 당색적 편견에서 나왔다고 볼 수 있다.

한편 퇴계에 의해 확립된 退溪學派는 퇴계사후 그 문인들에 의해 영남과 기호 지방으로 확산되어 갔는데 영남에서는 月川·鶴峰·西厓·塞岡의 4대문인들에 의해 각기 개별적인 學脈을 형성하였으나 그 消長은 같지 않았다. 그리고 퇴계→한강→肩叟系와 西厓의 故吏 및 在京南人系가 중심이 되어 近畿學派⁵⁾를 발전시켜

위와 같이 조선시대 士族家門이 대개 고려시대 郡縣의 士族史族에서 성장했듯이 安東權·金·張氏와 豐山柳·金洪·康·林氏, 眞寶李氏, 義城金氏 등도 모두 고려후기 鄉史家系에서 出自하였다.

2) 李載浩, 「宣祖修正實錄記事의 疑點에 대한 辨析 —특히 李栗谷의 「十萬養兵論」과 柳西厓의 「養兵不可論」에 對하여—」(『大東文化研究』 19집, 1985: 「韓國史의 批正」, 1985, 재수록).

3) 『松江集』 소개 金長生의 目錄과 己丑錄(『古文書集成』 15, 河回豐山柳氏篇,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4) 참조.

4) 忠孝堂 소장 古文書와 拙齋集(柳元之) 참조.

나갔던 것이다.

西厓의 그 영민한 자질과 온축된 학식 및 뛰어난 經綸으로 인해 임진왜란은 극복되었지만, 그는 불행하게도 종전과 함께 그의 반대파에 의하여 몰려나지 않으면 안되었고, 미구에는 역시 당색을 달리한 세력이 계속 집권하였으므로 후세 역사는 마침내 그의 방대한 학문적 저술과 탁월한 공적을 평가하는 데 인식하였던 것이다.

사실 역사적 인물의 평가는 무엇보다도 관련자료의 정확한 분석·비판 위에 전개되어야 한다. 그리고 어떠한 인물도 한사람의 인간에 지나지 않으므로, 신격화하거나 성역화해서 불가침의 상태로 두고 연구하는 자세는 지양되어야 할 것이다. 선조 8년(1575년) 동서분당 이래公私기록은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집필자의 당색에 따라 곡필과 편견이 크게 작용하였다. 가령 『宣祖實錄』은 복인의 집권기에 편찬되었기 때문에 南·西人들의 인물평에는 곡필과 誣毀된 기사가 많으며, 『宣祖修正實錄』은 인조반정(1623)후 주로 서인쪽 인사들에 의해 수정보완되었기 때문에 자파계 인사들의 수정에 비하여 西厓에 관한 수정보완은 미흡한 편이었던 것이다. 특히 조선후기는 학풍이 質보다는 文이 더 숭상된 나머지 先祖·先賢들의 文字를 두고 是非와 鄉戰이 빈발하면서 文集의 草木과 刊本이 상이한 경우가 많았다.⁶⁾

西厓에 관한 자료는 비교적 풍부하여 官撰의 實錄이 있고 자신의 저술인 西厓集·懲愆錄·辰巳錄·芹曝集·軍門謄錄·亂後雜錄·雲岩雜錄·喪禮考證·終天永慕錄 및 安東府 鄉規인 「新定十條」 등이 있으며 후인들에 의한 年譜·行狀·碑文 및 논평들로 나누어진다. 특히 최근에 『西厓全書』 4冊과 忠孝堂(西厓宗家) 소장 古文書와 典籍 및 主庫서원인 屏山書院자료를 수집, 발간한 『古文書集成』 6冊이 간행됨으로써 西厓관련자료는 일단 정리된 셈이다. 그런데 조선후기에는 당쟁으로 인해 인물논평도 ‘黨同伐異’의 차원에서 벗어나지 못했는가 하면 西人 내지 老論세계에서는 西厓를 당쟁의 장본인으로 간주하였다.⁷⁾

5) 李佑成, 「朝鮮後期 近畿學派에 있어서의 正統論의 展開」(『歷史學報』 31집, 1966).

6) 필자가 최근 典籍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그러한 경우를 자주 접하게 되었다. 가령 趙穆의 西厓兄弟와 鄭塚의 陸王學에 관한 이야기는 惺齋集의 草本에는 있으나 刊本에 실리지 않았다.

7) 西人내지 老論쪽의 西厓에 관한 시각을 적기해 보면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① 栗谷의 評: 「(柳成龍)但不能一心奉公, 時有顧瞻利害之意, 君子以爲短焉」(『栗谷全書』 소재 經筵日記)

② 『宣祖修正實錄』 卷41, 40년 5월條 「(柳成龍)局量狹小, 持論不弘, 不能去朋黨之心, 稍涉異己, 則不容於朝」

③ 『承政院日記』 659冊, 英祖 4년 4월 3일條 「(老少論系在朝重臣들과 英祖와의 대화 가운데 李麟佐亂과 관련하여) 上(英祖)曰使時勢至此者, 由於柳成龍云矣, (李)光佐曰成龍緊主西南分黨, 雖不能如先正臣李珥之光明正大 然其才調絶出矣」라 한 바 있다.

최근 우리 國學界에서는 특정 가문이나 인물에 대한 역사적 재조명 작업이 활발하다. 그리고 門中과 후손들에 의한 爲先事業이 고조되면서 혈연·지연 또는 당파적 편견에 흐르는 연구경향이 없지 않은 것 같다. 이러한 연구경향은 우리의 민족사학을 개별적인 家門史學으로 후퇴시키는 과오를 범할 염려가 없지 않다. 이에 필자는 西厓의 학문세계와 그 學脈을 간략하게 논술해 보기로 한다. 그런데 여기에서 거론한 문제들은 필자의 拙著⁸⁾에서 이미 천착된 내용을 다시 요약한 것에 불과하지만 약간의 새 자료를 보충함과 동시에 기존의 관련자료에 대한 문제점을 들어 보고자 한다. 본 소론에 임하는 필자의 기본자세는 어디까지나 '史料로 하여금 史實을 말하게 해야 한다'는 역사학적 시각에서 論旨을 전개한 데 지나지 않는다.

2. 西厓의 학문세계

西厓는 조부(公綽: 郡守)·父(仲郢: 監司)·재종숙(景深: 大司憲)의 家學을 이어받아 어릴 때부터 학문에 침잠할 수 있었다. 4세에 벌써 글을 읽을 줄 알았고, 6세때부터 『大學』·『中庸』 등 四書를 배웠으며, 13세때 서울의 東學에 들어가 經傳을 강학했는가 하면, 가정에서, 조부 또는 아버지의 임지(杆城·義州·定州)에서, 혹은 山寺에서 공부하였다.⁹⁾ 특히 그는 대륙과의 관문인 평안도와 황해도지방에 자주 여행하였고, 17세때 覲親을 위해 의주에 있으면서 때마침 우리나라에 최초로 전래된 『陽明集』을 입수, 독파하게 되었으며 그 영향으로 20대 중반 弘文館에 있을 때 陸象山의 학문을 좋아하여 그 학설의 요점을 정리하기도 했다.¹⁰⁾

8) 李樹健, 『嶺南學派의 形成과 展開』(一潮閣, 1995)

9) 『西厓全書』 소제 「終天永慕錄」과 年譜 및 金吳鍾, 『西厓柳成龍 研究』(새누리, 1994) 참조.

10) 西厓는 다음과 같이 일찍이 陸王學에 접할 수 있었고 또 趙穆으로부터 비난을 받은 바도 있었다.

① 西厓集 卷15, 雜著 「知行說」, 「知行合一說」, 「象山學與佛一樣」, 「王陽明以良知爲學」 및 同문집 卷18, 「書陽明集後」의 「右陽明文集, 余年十七, 趨庭義州, 適謝恩使沈通源自燕京回, 臺劾不檢, 罷棄重于鴨綠江邊而去, 行囊中有此集, 時, 陽明之文, 未及東來, 余見之而喜, 遂白諸先君, 令州吏善寫者謄出, 既而藏篋笥中」.

② 「庚午辛未(선조 3~4년, 1570~71)年間, 余以修撰在玉堂, 愛象山之論, 因抄出警語作一冊, 出入自隨」(『西厓集』 卷15).

③ 『惺齋集草稿』(琴蘭秀, 안동군 浮浦소장) 與趙士敬穆 「(癸未: 선조 16년, 1583) 近與鄭子精(琢)累次相從, 語及赴京時陸集賀來事, 子精以爲「吾之所以賀來其書於燕肆者, 蓋欲詳知其學, 非欲公信其道, 而聞士敬(趙穆)以此謂余, 此意未知云云」, 而見(西厓)又對余盛言, 「士敬丈寄我詩中, 有鵝湖二陸之語, 以吾河回比之陸氏之鵝湖, 以吾兄弟比之於二陸, 豈可以所居字音之相近, 而有此譏嘲乎, 其詩意似以我爲學象山者然, 朋友之道不當如是云云」, 不無憾意於兄, 未知其然耶, 子精之賀來陸集, 不足異事, 不足爲子精之累, 而見兄弟則見識標望, 爲世所重, 平日師門之所期許者, 迥出常倫, 何可以此不近似之語, 其及於詩章耶, 兄須作書於二人, 明其

이처럼 西厓는 가학에서 기초적인 童蒙書와 四書を 배우고 육왕학까지 접한 다음에 陶山書堂에 가서 퇴계를 뵈고 수개월 동안 『近思錄』 등을 수학하면서부터 정통성리학을 전수받는 한편 그의 학문도 성숙단계에 이르렀던 것이다. 그런데 조선시대 학자들의 학문적인 전수와 淵源문제를 두고 후학 후손들에 의한 是非논쟁은 재고되어야 한다. 당시의 師弟관계란 현대사회와 같이 책을 펴고 직접 受學聽講하는 것 뿐만 아니라 잠시 찾아뵈고 질의하거나, 토론하거나, 書札로 문답하는 것과 같은 관계도 넓은 의미의 사제관계로 간주했던 것이다. 더구나 전근대사회에 있어서 기초적인 학문전수는 거의 家學에서 이루어졌다. 權溥와 李齊賢, 金叔滋와 宗直, 孫仲暉와 李彦迪, 李堦와 李況, 鄭述와 張顯光의 관계처럼 부자·숙질·舅甥·翁壻 사이에서 학문의 전수가 많았듯이 西厓의 학문도 퇴계에게 수학하기 전 이미 家學에서 그 기초가 마련되어 있었던 것이다.

西厓는 친가·외가의 소재지가 전형적인 鄉村이라는 데서 어릴 적부터 농촌과 향촌사회의 실정을 체험할 수 있었고, 17세 쯤에 동시에 京華의 분위기에 접하게 되었다. 그는 10대 이래 여러 지방을 여행하고 관직생활을 통하여 자주 지방과 서울, 또 書狀官으로 중국에 다녀오면서 지방의 실상과 민중의 생활상 및 외국 문화와 풍물을 소상하게 관찰할 수 있었다. 자신이 목격한 민간의 병폐와 時政의 개선점을 還朝 즉시 啓陳했던 것이다.¹¹⁾

그의 학문은 心性理氣之學과 經世之學을 겸수하였고 經史와 文史를 겸비한 實用的인 학문을 중시하였다. 그의 수제자격인 愚伏(鄭經世)은 스승을 평하되

젊을 때부터 공부하는 법이 깊은 천착과 실천을 위주로 하였다. 항상 經世濟民의 사업과 禮樂教化에 유의하는 한편 군대의 조련, 財政의 운용과 같은 일에도 상세히 조사연구하지 않은 것이 없었다 재질은 능히 국사를 말함에 넉넉하였고, 학문은 족히 실용에 모자람이 없도록 치밀하였다.¹²⁾

고 하였다. 西厓는 조선시대 전형적인 사림파의 기질을 갖춘 학자적 관인으로서 詩文·經史·道學·儀禮·軍事 및 兵器學·醫學·地理書에 이르기까지 해박한 학문적 세계와 방대한 著述을 남겼는데, 그러한 내용은 최근에 발간된 『西厓全書』 4冊에 수록되어 있다. 이 전서에는 서애의 저술이 刊木篇·속집편·별저편·부록편·追錄篇 및 史料篇 등 다섯 부문으로 나누어져 있다. 그 편질이 방대하고 체계가 다양하기 때문에 그 속에 담긴 내용을 간단히 요약하기는 어렵지만, 그 저술의 주안점은 학문과 정치·군사·사회경제적 시책과 改革案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不然, 使無彼此疑阻之嫌如何, 弟問此語, 不得不使兄知之.(이 서간문은 후일 刊頒된 「柳齊集」에는 부재됨)

11) 西厓年譜 卷1, 「先生每往來家鄉, 必廣詢民瘼, 還朝輒啓」.

12) 西厓年譜 卷3, 鄭經世撰「西厓行狀」.

西厓의 학문세계는 간본편의 本集(卷10·11·12) '書'편에 포괄적으로 나타나 있으나, 특히 그의 窮理精深한 道學은 본집 卷15 雜著 主宰說 이하의 20여편의 학설에, 그의 해박한 史學은 본집 卷13 '讀史蠡測'의 30여편의 논설에 잘 나타나 있고, 그의 민정·군사·외교 및 사회경제에 걸친 각 방면의 政策논의는 주로 별저편의 疋昌錄·芹曝集·辰巳錄·군문등록과 본집의 奏議·疏筭·啓辭 등에 잘 나타나 있다. 그런데 서애의 그러한 여러 방면에 걸친 정책논의도 그의 정심·洞察한 도학·사학의 온축에서 도출되었다고 볼 수 있으니, 그의 학문세계를 연구할 적에는 그 奏議·改革案의 고찰에 앞서 도학을 비롯한 학술면의 저술에 유의해야 할 것이다. 특히 그의 학문관은 아래의 柳祖詒 上疏回啓에 잘 나타나 있다.

非常한 변란을 당했을 때는 비상한 조치를 강구해서 정세를 변통시켜 시국을 구제하도록 힘써야 할 것인데도 기껏 말하는 것이 菴楫은 변경시킬 수 없다, 일반백성의 의사에 어긋나는 일을 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마치 좋은 밥과 고기를 먹고 병을 고치려 하고, 나막신을 신고서 강을 건너려고 함과 같은 일이다. 오늘날의 난국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현실과 장래를 내다볼 줄 아는 식견있는 사람과 더불어 논의할 것이지, 그렇지 못한 俗人들과는 상의하기 어렵다. … 무릇 帝王之學은 經綸을 귀하게 여겨 반드시 근본인 마음과 지엽인 시책이 함께 이루어져야 하며 실체와 응용이 모두 갖추어져서 안으로는 心神과 性情의 정미한 데서부터 시작하여 밖으로는 政事의 실체에 이르기까지 순서에 따라 조리에 맞으며 精粗巨細 가릴 것 없이 그 어느 하나도 빼놓지 않음이 없어서, 큰 경우엔 천하를 다스리고 작은 경우는 털끝같이 작은 일에도 정성을 다한 뒤에야 비로소 실체를 밝히고 응용에 합당한 학문이 될 것이요 有體無用이란 비웃음을 받게 되지 않을 것이다.¹³⁾

이처럼 서애는 일찍이 육왕학을 이해한 바탕 위에서 나중 퇴계의 說破에 따라 양명학을 정주학과 비교, 구체적인 비판을 가했지만, 그의 평생사업을 심층 분석해볼 때 그의 體用검비적인 학문경향은 오히려 양명학적 영향이 다소 작용했다고 볼 수 있다.

그가 임란을 전후해서 국정전반에 걸쳐 많은 개혁안을 제시할 때마다 당시 俗儒들의 완고불통을 개탄하였고, 또 유학자들의 논의가 자못 根本之學에 절실하기도 하지만 지나치게 관념적인 이상론이어서 현실과 유리되어 있다고 하였다.¹⁴⁾ 그는 국난 극복책으로 포괄적인 민심수습책, 신분을 초월한 인적자원의 활용책, 재정확보와 민생안정을 위한 貢物作米議, 식량과 군량의 확보책으로 제시한 鹽鐵煮鍊議·中江開市議·設堡屯田議 등을 거론할 때도 “금일의 급선무는 마땅히 浮文을 떨쳐버리고 本實을 돈독히 해야 한다”고 강조하는 한편 과감한 변통을 주장하였다.¹⁵⁾

13) 「西厓集」卷8, 柳祖詒 上疏回啓

14) 李樹健, 「西厓柳成龍의 社會經濟觀」(『人丘史學』 13·14합집, 1977).

15세기에 확립된 조선왕조의 기본체제는 16세기 후반으로 접어들자 모든 면에서 해이해져 갔다. 즉 신구세력간의 갈등과 대립이 사회와 당쟁을 유발했는가 하면, 전제·병제 및 수취체제의 붕괴에 따라 국가의 통치력이 이완되어 公的領域이 축소되는 반면 私的領域은 확대되어 갔다. 따라서 公田·公民이 격감되면서 재정 수입의 감소와 병역자원의 부족현상을 초래하는 동시에, 조정의 기강은 문란하고 관리들의 주구는 더욱 심해지면서 마침내 자영농민의 몰락과 농촌경제의 파탄을 가져왔다.

이에 대응하여 위정자로서 실지로 경륜에 當路한 관인들은 당면문제의 개혁시책을 奏議 등의 형식으로 표현하고 그 실현을 추진시켜야 할 입장에 있었던 것으로, 발본적 또는 전반적인 정책체계는 되지 못했으나 비교적 진상을 통찰하고 탁견을 토로한 이도 없지 않았으니 그러한 인물의 한 분이 西厓라 하겠다.

임란을 전후한 시기에 거론된 허다한 개혁안은 대개 공통성을 지니고 있었다. 趙光祖·李彦迪·李滉·李珥·趙憲 등과 西厓가 제시한 개혁안은 바로 시대적 상황에 따라 다소 濃淡의 차이는 있으나 그 기본방향은 궤도를 같이하고 있었으니, 그것은 다름아니라 해이해진 조선왕조의 봉건체제를 재정비 강화하려는 것이었다.

조선시대 정치·사회적 지배세력인 士大夫는 修己治人之學인 經史와 詩文을 기본으로 하는 儒學을 다같이 이수하였으나 그 내용에 있어서는 몇개의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西厓가 속한 嶺南學派도 신분·직역상 兩班士大夫에 해당됨으로 당시 일반 사대부와 같이 詩賦詞章에 능한 자, 戰術과 戰略에 일가견을 지닌 자, 性理學과 禮學에 일가견을 가진 자, 經世術과 行政實務에 능한 자에 따라 文·武·學(哲)·吏(吏才)의 넷으로 분류해 볼 수 있다. 퇴계문도들을 이러한 유형으로 분류해 보면 文과 武 또는 文武를 겸한 자, 文·學·吏 3자를 겸한 자, 文과 學을 겸한 자, 또는 學의 경지에도 이르지 못하고 행정능력인 吏才도 갖추지 못한 단순한 詩文을 하는 자와 文과 學을 갖추고도 吏才를 갖지 못한 자 등으로 나눌 수 있는데 西厓는 그와 같은 기준에서 분류한다면 文·武·學·吏를 겸비한 學者의官僚라 할 수 있다.¹⁵⁾

조선시대 士林이 갖추어야 할 상기 4가지 요건 가운데 文과 學을 갖춘 인사는 많았으나 행정업무 처리능력인 吏才를 갖추지 못한 것이 관료로서 최대의 약점이 있는 데 반해 西厓는 그렇지 않았다. 西厓의 吏才에 대한 논평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15) 『西厓集』 소재 貢物作米議·鹽鐵煮鍊議·中江開市議·設堡屯田議·請廣取人才啓·請措置糧餉啓·請訓練軍兵啓·請修舉鎮管之制啓·戰守機宜十條 등 참조

16) 西厓年譜 卷3, 鄭經世의 西厓行狀과 李堧의 狀末總論 및 당대, 후대 諸人의 論評 참조 그런데 西厓의 행정실무와 외교·군사·일반사무 처리 능력은 조선시대를 통해 그를 능가할 인사가 없을 정도로 탁월했다는 것이 정평이다

1) 申欽手記: 「西厓柳相國當壬辰癸巳倭寇充斥, 天兵滿城之日, 羽書旁午, 文移動如山積, 公以余爲疾書, 必命余執筆, 口呼成文, 聯篇累牘, 迅如風雨, 而筆不停寫, 文不加點, 煥然成章, 雖咨奏之文亦然, 詞臣奉教撰進者, 不得有所加損於其間, 眞奇才也」.

2) 宣祖修正實錄: 「癸巳以首相, 獨當中外機務, 天將咨揭, 日夕旁午, 諸道奏牘東西交集, 成龍左右酬應, 敏速如流」(卷41, 宣祖 40년 5월條).

3. 西厓의 學脈

西厓의 학맥을 거론하게 되면 거기에는 서애의 학문적 연원과 전수문제, 서애의 학통을 전수한 그의 문도들에 의해 학맥이 어떻게 계승되었는가 하는 문제가 구명되어야 한다. 조선왕조의 통치이념으로 자리잡은 性理學은 16세기 중반에 접어들자 士林세력의 政界 장악과 함께 政派의 분열과 동시에 人脈·地緣 및 學說상으로 점차 流派가 생기면서 東西분당과 함께 크게 영남학과와 기호학파로 대별되어 갔다. 15세기 후반 金宗直을 영수로 한 경상도 출신의 新進士類를 '嶺南士林派'라 한다면, 16세기 중반이래 李滉·卍植의 학통을 포괄해서 이를 嶺南學派라 할 수 있다. 전자에서는 훈구파의 집권하에 성리학의 수용·정착이라는 과정에서 程朱의 四書集註, 『小學』과 『家禮』를 교학 및 실천윤리의 기본으로 삼았는데 반해, 후자에서는 『性理大全』·『近思錄』·『心經』·『朱子大全』·『儀禮經傳通解』 등 성리학 서적을 입수하면서 理氣心性學과 禮學을 바탕으로 한 '道學'을 주로 하여 李珣·成渾을 중심한 기호학파에 대칭되는 학파로서, 경상도를 지역적 범위로 하면서 학문상으로는 퇴계학통을, 정파상으로는 東人 또는 南人의 입장을 고수하였다.

기호학파에 대칭되는 영남학파의 2대산맥인 退溪(경상좌도와 상도)·南冥(우도와 하도) 문인들을 두 師門의 及門錄에 의거 출신지역별로 통계해 보면 각기 지역성을 강하게 띠고 있다. 이러한 退南學과 경상좌(상)·우(하)도에 대한 대비는 두 학자의 사후 정치 정세의 변화와 학맥의 분파에 따라 더욱 첨예화해갔다. 선조 8년 동서분당때는 퇴남문도가 다같이 동인편에 섰으나 동왕 22년경 동인이 다시 남북으로 분당될 때는 전자가 주로 남인편에, 후자는 북인편에 서게 되면서부터 두 학파는 서로 학문적 입장과 정치적 성향을 달리하면서 반목과 대립을 일삼게 되었다. 선조 30년대에 두 사문의 高弟인 西厓와 鄭仁弘을 중심으로 남북인 사이에 당쟁이 격화되자 西厓는 정인홍계 북인들의 공격을 받아 마침내 실각하게 되었고, 정인홍은 15년간 광해정권을 영도하는 위치에 섰으나 인조반정때 처형됨으로써 남명학파는 지리멸렬되고 말았다.¹⁷⁾

西厓의 학맥과 東西·南北당쟁사에 있어서 그의 位相을 제대로 구명하기 위해

서는 당시의 시대상황과 관련인사들의 동정 및 관련자료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요구된다. 西厓에 대한 당대 또는 후대인들의 褒貶 가운데 ①月川の 西厓兄弟에 대한 陸王學감염 비난, ②西厓·栗谷 兩賢에 대한 논평, ③己丑獄事(1589)에서 李潑일가와 崔永慶 冤死에 대한 西厓 또는 鄭澈의 책임문제, ④千亂 중 이른바 ‘主和誤國’에 대한 西厓의 책임문제, ⑤西厓·月川사이의 不和문제와 月川の 陶山書院 配享을 두고 禮安·安東士林間의 갈등관계 등에 관한 올바른 究明이 요청된다. 西厓와 가장 대칭적인 존재였던 李珥·鄭澈·鄭仁弘에 관한 당대 및 후대인의 논평도 그들의 門生故吏는 물론 당사자들까지도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자신의 주관적 편견에서 초극할 수 없었던 것이며 더구나 학문적인 평가와 人物評까지도 그 추종세력의 政權得失과 문인들의 消長에 따라 좌우되었던 것이다.

조선중기 성리학에 관한 學說 논변 가운데 晦齋와 忘齋·忘機堂과의 太極論辨, 退高의 四七論辨, 牛栗의 理氣論辨과 같은 것은 시종 학문적 입장에서 서로 논란을 벌렸지만, 당쟁이 격화된 宣祖朝 후반부터는 어느 학자를 막론하고 각기 자파의 학설과 당색에서 거의 벗어나지 못했던 것이다. 한편 中國에서는 程朱·陸王學이 並存한 데 반해 조선에서는 退溪에 의해 육왕학이 배척된 뒤부터는 사림사회에서 그것을 공개적으로 찬양하거나 교습할 수 없었다. 그 결과 西厓·鄭瑑과 같이 일찍이 육왕학에 접했던 퇴계문도도 스승의 권위에 압도되어 ‘陽朱陰王’이란 애매한 태도를 취했는가 하면 당시의 분위기를 감안한 나머지 오히려 육왕학에 대해 비판하거나 辨說을 쓰기도 했던 것이다.

‘主和誤國’의 실체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조선중기 사림의 학문세계와 당시의 정국을 일별할 필요가 있다. 15세기 經世의 경향이 강했던 성리학이 16세기 중엽으로 접어들면서 사변적 이기론으로 흐르는가 하면 왜란과 당쟁의 격화, 仁祖反正과 丙子胡亂 등으로 인해 義理와 名分論이 지나치게 강조되어 갔다. 『春秋』의 要諦인 「正其義, 不謀其利하고 明其道, 不計其功하는」 이른바 春秋大義는 16세기 이래 주자학의 심화과정에서 禮學과 함께 강조되어 갔지만, 특히 인조반정과 병자호란을 계기로 하여 하나의 시대사조로서 당시 양반사대부의 의식세계를 지배해 다시피 하였다. 임진왜란을 겪은 뒤 明에 대한 이른바 ‘再造邦家之恩’, 광해정권을 타도하고 서인정권을 확립하는 과정에서 민심의 불복과 李适亂 등을 수습하면서 광해정권이 저지른 殺兄弟·廢母라는 悖倫行爲를 仁祖反正의 구실로 내세우는 데서 義理·名分·正統 문제가 중요한 ‘이슈’로 등장했던 것이다.¹⁷⁾

千亂때 明·倭間의 講和문제는 우리 朝廷에서는 불가항력이었고 또 당시 국내나 민생문제로 보아 위급한 정세를 좀 완화해 보겠다는 입장이었다. 왜란과 호란 때 사림사회는 크게 斥和派와 현실을 인정하는 講和派로 나눌 수 있는데 春秋大

17) 李樹健, 「南冥曹柏과 南冥學派」(『民族文化論叢』 2·3합집, 1982).

18) 李樹健, 「晚學堂袁尚庵研究—端溪 및 龜庵과의 관계를 중심으로—」(『嶠南史學』 5, 1990).

義와 名分論에서는 전자가 항상 후자를 압도하는 분위기가 후대로 올수록 강화되어 갔으나 당시의 국내외정세나 국민복적인 차원에서 본다면 후자가 훨씬 현명했다고 볼 수 있다. ‘主和誤國’이란 명목으로 西丘를 비난했던 趙穆·정인홍·鄭蘊 등은 호란때의 金尙憲 등 척화파¹⁹⁾와 맥락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

당시 仁祖의 지적²⁰⁾처럼 현실과 실재를 떠난 의리와 명분론에 집착한 인사들에 대한 올바른 평가가 내려져야 한다고 생각된다.

한편 퇴계 생전에는 禮安이 비록 安東과는 별개의 고을(행정구획)로 존재했으나 퇴계문도라는 공통성에 입각하여 넓은 의미의 안동권이 퇴계학파로 통일되어 있었다. 그런데 향청·향교가 고을 단위로 설치, 운영되듯이 서원도 17세기부터는 郡縣단위로 설립, 운영되어 갔으므로 疊設문제가 심각하게 논의되었다. 더구나 高弟가 많은 퇴계문하생 중에서 누가 스승의 嫡統이 되는가가 문제였다. 그래서 예안과 안동은 개별적인 고을이라는 관념이 강화되고 또한 퇴계의 학통을 누가 적통으로 계승하느냐 하는 경쟁이 벌어지기 마련이었다.

퇴계의 4대 高弟 가운데 학봉은 壬亂 중에 순절하였고, 한강은 최년소인데다가 출신지가 星州라는 데서 禮安과는 격리되어 있었으니 끝까지 경쟁상대는 月川과 西丘였다. 兩賢은 나이차는 컸으나 사망시기는 다같이 선조말년이었고 서로 성격과 爲學·出處·官職 등이 상이한 데다가 月川은 평소 자신이 年長者이고 또 師門을 가장 오래, 가장 가까이에서 侍奉한 데다가 퇴계사후 ‘爲師사업’을 주관한 데서 자부심을 갖는 한편 年少者인 西丘가 領相으로 정국을 주도한데 대한 불편한 심기를 갖고 있었다. 여기에도 南北분당으로 인해 西丘는 李山海·鄭仁弘과는 당색을 달리하게 되었고²¹⁾ 西丘집권기에는 趙·李·鄭 3인이 조정에서 소외되고 있었으니 3인의 西丘에 대한 불편한 심기는 거의 공통적이었다.²²⁾ 여기에도 月川

19) 『仁祖實錄』卷39, 仁祖 17년 12월 戊申條「(金尙憲上疏에) 太祖學義回車, 建二百年常固之基, 宣祖至誠事天, 被壬辰年拯濟之恩」하니 殿下께서 來義忘恩한다면 지하에서도 先王을 뵈 수 없으며 신하들도 盡忠하지 않을 것이라 하였다

20) 『仁祖實錄』卷38, 仁祖 17년 2월 己酉條「(仁祖曰) 不樂仕宦者(斥和派), 乃不忘中原, 自謂高行, 殊不知先念本國, 然後次及中原之爲是也」.

21) 實錄에 의거 退南兩學派를 대표했던 西丘와 鄭仁弘의 상극관계를 적기해 보면 다음과 같다.

① 「宣祖實錄」 「(정인홍)與柳成龍人不合, 二家門人, 互相排軋, 南北之黨, 至此愈深, 加以仁弘尊南冥, 而夷退溪, 譏貶之辭, 形於文字中, 以此爲上類所訾」(卷210, 宣祖 40년 5월 丁丑條)

② 「光海君日記」 「人抵嶺南士子之府庫, 而視之後, 無眞儒卓然可與師表者, 左道與右道之半則其論主於柳成龍, 而言論俗, 右道之高臺以下, 則主於仁弘, 而言論暴」(卷26, 光海 2년 3월 丁酉條, 鼎足山本)

22) 西丘와 月川과의 不和관계자료는 「西丘全書」卷2, 宣祖實錄, 光海君日記, 涪溪記聞, 星湖僊說, 燃藁室記述 등에 산견된다 ① 「西丘全書」卷2, 上伯兄書 7편, ② 忠孝堂 소장 古文書 辨誣錄, ③ 柳成龍의 與西丘書(丁酉) 「陝人恐有所受於鄉, 而此中月(趙穆)憾猶不止, 離和日甚可怕」, ④ 擬與趙月川書 등에서 그러한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

이 '主和誤國'의 책임을 西厓에 지우게 되자 당색상 적대관계에 있던 정인홍은 月川에 접근하여 그의 호감을 샀다. 선조 31년 西厓를 실각시킬 때 이산해·정인홍을 중심한 北人세력이 주도했지만 그 이면에는 北인과 연결된 月川 및 月川門人들의 작용도 있었다.²³⁾

西厓와 月川의 갈등관계는 후대에 刊頒된 『文集』에 의거하여 살펴보면 별문제 없는 것같이 보인다. 그러나 최근에 공개된 日錄(溪巖日錄)·文集草稿(惺齋集)·古文書(河回 忠孝堂 소장)에 의거 관련자료를 분석해 보면 당시 兩賢관계가 얼마나 심각했나를 짐작할 수 있다. 宣祖 31년 2월 西厓가 정인홍세력으로부터 공격을 받아 파직, 하향하면서 上伯兄(柳雲龍)書에서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① 「此間攻擊之流，皆憑藉月川(趙穆)云，此人白首林下，收拾李某餘論，遽絕三十年舊知，爲之一笑一歎，今之攻弟者，一曰議和，二曰山城，三曰練兵，四曰欲守都城，五曰儲貯軍糧，未知此事是非，當何所定，若以此爲非，則欲束手輸社稷與倭也，以此而自以爲上論，亦可歎也」(『西厓全書』卷2, 書(出家藏本草))

② 「弟百艱千辛，仇怨滿國…弟雖庸劣，赤心報國之誠，抵死未已，而狼狽如此，天也奈何…南中相識之人，皆爲倒戈，外論以此藉口，亦是不幸之甚，今行弟不宜城(禮安)，此亦應爲口實已」(同上 戊戌 2월條).

③ 「傾陷搆捏，無所不至，寄身於謠諑之中，無路可避…造言者皆以南方上論藉口…趙月川諸人，做得此事，業有功於時論人云，亦可笑」(同上條).

④ 「凡平昔稍存一面者，無不被搆排…鄉風之變自一人始，如呂遠之謗，亦出於此人云，可歎可笑」(同上 戊戌 8월條).

「罷職落鄉，窮途之狀，使人酸鼻，南鄉亦無數日住活之資，…平生作宦，寒薄如此，而末路更得貪鄙之名可笑」(同上 戊戌 11월條).

이상 戊戌年 2월에서 己亥年 3월까지 伯兄에게 與答한 西厓의 書札을 고찰할 때, 정인홍과 月川을 중심한 京鄉間 또는 陝川과 禮安인사들이 서애를 誣毀, 실각시킨 정경과 거기에 따른 자신의 심사를 토로하고 있다. 자신의 爲國衷情과 검약한 생활자세 및 국정수행에 국궁진취한 결과가 끝내 파직당하고 또 친우들로부터 모함과 심지어 貪鄙의 누명까지 받고 있다는 것이다. 서애가 선조 32년 3월에 답한 伯兄書에 낙직, 鄉居하는 심정을 「登山有虎, 入水有龍, 無地可安」이라 표현할 정도로 자신의 괴로운 심정을 토로하였다.

한편 柳雲龍은 아우 西厓의 처지를 변호하기 위하여 月川에게 보낸 서찰을 초안했는데 이를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²⁴⁾

23) 鄭慶雲, 『孤臺日錄』卷4, 甲辰年(宣祖 37년, 1604) 12월 8일 己酉條 「聞江左儒士疏欲攻來庵先生(정인홍), 趙月川因禁中止」라 한 바와 같이 선조 30년대 月川은 정인홍과 상호 제휴관계에 있었던 것이다.

24) 『西厓全書』卷2, 書(出家藏本草) 謙庵擬與趙月川戊戌. 그런데 이 서찰은 다음 註記와 같이 月川에게 전해지지 않았다(「李正郎慶雲不此書往烏川, 擬將傳致於月川, 有言傳之無益, 反增」

退溪선생께서 별세하신 후 제자들의 소행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니 뒷날 무슨 낮으로 지하에서 선생을 뵈겠는가. 先生歿後 29년이 지난 이제 「同志凋零, 德業無聞, 前日修己養性者, 今反爲口耳交爭, 前日恥言人過者, 今變爲訐人陰私, 敦厚之風日衰, 浮薄之習漸成」하니 尊丈(月川)께서 世道를 만회할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근래 소문(西厓 공격)들이 존장의 문하에서 나온다 하니 안타깝습니다. 舍弟의 일이 이렇게 낭패지경에 이르니 다시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존장과 舍弟간의 오해를 지하에 계신 선생(退溪)님이 어떻게 보겠습니까?

이상과 같이 서애와 월천 사이는 오해가 오해를 낳았고 그 오해로 인해 서애下鄕때 월천과 相面하지 않은 것이 더욱 틈을 생기게 했다. 退南兩賢의 관계도 본 이들은 서로 畏敬하는 사이인데도 兩門人들 사이에 경쟁관계를 갖고 오해를 유발했듯이 서애와 월천 사이도 이와 비슷했던 것이다.

西厓실각 후 北人이 집권하게 되자 月川은 3品에서 2品의 고관으로 승진되었는가 하면, 그의 門人인 金澤龍·金中淸, 李德弘과 琴蘭秀 諸子들 (李慕·莊·苙·藏과 琴憬·僕·愷), 月川의 두 아들 (趙壽明·錫明), 孫祐·徐兢 기타 예안·봉화·榮州지방의 士林이 北人의 후원하에 대거 生進科와 文科에 入格하게 되었고 淸要職에 오르는 등 出仕者가 많아졌다.²⁵⁾ 그후 月川이 죽자 그 문인들에 의한 陶山書院 배향문제가 거론될 때 金垓를 비롯한 禮安의 일부인사와 학봉·서애문인들은 그 배향을 반대했으나 月川門徒들은 퇴계의 학통을 嫡傳한 제자는 月川이라 주장하며 月川을 업고 주도권을 장악하기 위해 北人정권의 지원아래 안동권의 반대세력을 누르고 配享을 실현시키게 되었다.²⁶⁾ 이때 北人정권은 金直哉의 誣獄을 일으켜 柳紘과 鄭經世 등 西厓系 인사들을 연루시켜 투옥하거나 파직시켰던 것이다.²⁷⁾ 이러한 西厓와 月川문도 사이 또는 南北人 사이의 정쟁은 仁祖反正를 계기로 안동권에서 정인홍과 연결된 月川系 인사들이 北人정권의 몰락과 함께 도

場不好景象, 故不果傳」)

25) 『光海君日記』(太白山本) 光海 6년 11월 25일條 「(趙穆의 陶山書院配享에 따른 賜祭에 관한 史臣의 言及에) 趙穆況之高弟也, 常以柳成龍和議爲非, 又與李山海舊交相善, 嶺南人盛言穆與柳成龍有隙, 而非其實矣, 至是, 禮安人李莊等, 唱言穆乃仁弘同志, 從祀澠祠, 故臺諫有此啓, 自此安東禮安之間, 多附會仁弘, 得科第爲名官者, 識者爲穆恥之」.

26) 光海初 大北집권기 禮安榮州사립 가운데 月川門人들이 李山海鄭仁弘의 힘을 배경으로 西厓鶴峰系의 士林여론을 무시하고 月川을 도산서원에 從享하였다. 金垓는 그 日錄에서 그 사정을 아래와 같이 적고 있다. 「聞金中淸爲禮佐, 列書禮安儒生名, 請爲從享, 呈于本曹, 上達着啓字而下, 此輩不有士論, 不顧是非, 直行己意, 擅弄陶院, 曾不若渠之私廟, 欺君父侮先生, 橫恣鴟張, 至於此極, 厥罪無所容矣」(『溪巖日錄』 光海君 5년 6월 26일條), 「所可痛者, 鄉中無人, 彼輩桀驁如此, 以莫重莫大之地, 爲渠輩專弄之私場, 汲汲奔走, 惟恐不及, 蓋此輩慮士論之不一, 相與聚謀, 忙手舉行, 則既爲之後, 雖有言者, 亦無如之何也, 此非盜賊之謀乎, 師尊則弟亦尊, 此輩本計, 非爲其師, 不過爲自己而爲是舉, 欲以憑藉而取重於此耳, 況李苙輩以先生道統, 傳之月川, 月川傳之中淸, 蓋自前日, 已有此言, 今之所爲, 不過如此而已, 甚矣小人之心也」(同上書, 同王 4년 2월 8일條).

27) 柳紘, 『修巖集』 卷4, 壬子日錄.

태되면서 月川學脈은 마침내 단절되고 그 계열 人士들은 서애·학봉학맥의 양편에 분속되었다.

이상과 같이 西川·月川 양문인 사이에 알력과 갈등이 해소되자 이제는 安東에서 西川과 鶴峰학맥을 계승한 인사들에 의해 屏山·虎溪서원을 중심으로 갈등이 생기면서 이른바 뒷날의 '屏虎是非'조짐이 태동하고 있었다. 安東의 유림사회에서 가장 심각한 鄉戰은 '병호시비'가 대변하듯 院祠문제와 관련하여 야기된 것이 가장 많았다. 安東府의 최초서원인 동시에 禮安의 陶山書院과 거의 동시에 설립되었던 廬江書院의 賜額이 뒤에 설립된 三溪書院에 뒤졌고 光海朝에 西川과 鶴峰이 여강서원에 配享되면서부터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하였다. 西川 세력의 본거지인 안동은 南北分黨때 정인홍과는 적대관계에 있었고 金是樞 등의 '請斬李爾瞻疏'와 柳櫻 등의 牛栗障廬反對疏 및 柳世哲 등의 禮疏²⁸⁾가 당시 집권세력을 자극한 데서 여강서원의 사액이 지연된 데 반해 삼계서원 主享의 權機은 당쟁전 사람이며 또한 安東府의 越境地인 奈城유림이 여강서원과는 별도로 사액운동을 추진한 결과 삼계는 西人집권기인 顯宗 元年(1660)에, 여강은 南人집권기인 肅宗 2년(1676)에 각각 사액을 받았다.²⁹⁾ 또한 여강은 光海 2년 西川·鶴峰을 배향하면서부터 '位次'문제를 비롯하여 西川과 屏山書院, 鶴峰과 尙德祠와의 관계가 복잡하게 얽히게 되었다.

西川을 主享한 屏山書院은 본래 豐岳書堂에서 발전한 것으로³⁰⁾ 西川死後 光海 2년(1610) 8월 1일 立廟되었고 동왕 6년 4월 15일 位版이 봉안되었다. 西川位版은 동 12년에 여강서원에 移配되었다가 다시 仁祖 7년(1629)에 병산에 復享되었다. 이에 앞서 西川位版의 여강·병산봉안문제에서 '一邑兩院並享'과 '一院本安'을 두고 설왕설래가 있었으나 朱了의 例에 따라 一邑兩院並享도 무방하다 하여 여강과 병산에 並享하게 되었다. 뒷날 '屏虎'문제가 제기되자 屏論쪽은 병산서원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진 나머지 虎溪書院에 대해서는 虎論과는 인식이 달랐다. 한편 鶴峰을 本享했던 尙德祠는 光海 12년 位版이 여강에 移配되면서부터 그 서책과 노비는 모두 여강에 합쳐져 병산서원처럼 별도로 존속하지 않았다.³¹⁾

28) 李樹健, 「朝鮮後期 嶺南仙疏에 대하여」(『李內言九旬紀念韓國史學論叢』, 1987), 「正祖朝의 嶺南西人疏」(『嶺南史學』 1집, 1985)

29) 廬江書院은 肅宗 2년 賜額과 동시에 院名이 廬江에서 虎溪書院으로 개정되었다.

30) 『永嘉誌』 卷4, 豐岳書堂條「在豐山縣北一里, 嘉靖癸亥(明宗 18년, 1563)創立, 生員權景幹等上疏, 仍賜學田, 其後西川柳成龍, 以院在路傍, 不合於藏修之所, 勸諸生移卜于屏山; 同志書院條「屏山書院本豐岳書堂, 在花山屏山之間, 對絕壁臨長淵, 最爲奇絕, 乙巳移建于南岡子坐牛向之基」.

31) 『永嘉誌』(草稿本 1, 2차) 卷4, 尙德祠條「在臨河縣鄉社之西, 降慶年間(1567~1572), 縣人置書堂, 以爲蒙主講讀之所, 未久合于廬江書院, 書間被獲皆燬焉, 萬曆癸卯(宣祖 36, 1603), 縣人議立慶老之所, 有堂有壇, 堂之西, 建尙德祠, 本安鶴峰金先生諱一, 先生縣人也, 取古者鄉賢致祭於社之義也 … 黍用稻粱, 牲用鷄豚, 祀後行邑氏鄉約禮於壇上, 兼上慶老會」이 기사는 1899년에 始刊된 현존 『永嘉誌』(목판본)에는 실리지 않았다. 한편 『鶴峰年譜』

金誠一은 임란때 50대 나이로 순국하였으니 당대에 미쳐 하나의 학파를 형성할 여유는 갖지 못했으나, 나중에 퇴계→학봉의 학통이 그 제자 敬堂(張興孝)을 거쳐 存齋·葛菴형제로 이어져 안동부의 임하·일직현과 영해 지방을 연결한 虎溪서원이, 서애학통을 전승한 안동부 서북쪽의 屏山서원과 대치하면서 안동권에서 퇴계 학파의 2대 산맥을 형성해 갔던 것이다.

星州를 비롯한 경상도의 중앙부를 세력권으로 한 鄭寒岡은 나중에 仁同을 중심으로 하나의 학파를 이룬 旅軒(張顯光)과 함께 인조반정 후에는 퇴·남 양학파를 융합하기도 하였다. 그런데 정구의 제자 許穆이 肅宗초 한때 남인정권의 '山林'으로 존재하면서 퇴계학파의 一分派인 近畿學派를 형성시켜 나갔던 것이다.

西丘는 학자적 생활보다는 50대 중반까지 관직에 생애를 바쳤기 때문에 만년의 落職在鄉期를 제외하면 평소 학도를 모아놓고 강론할 기회는 적었다. 그러나 39세로 상주목사에 부임하자 정경세, 李竣형제, 全崧 등 상주지방의 준재들을 한때 자기 傘下에 모이게 하였고, 다른 한편에서는 병산서원의 전신인 豐岳書堂이 서애의 출신지 豐山縣지방 학생들의 講學장소가 되어 이곳을 중심으로 西丘門人이 많이 나오게 되었다. 또 西丘의 연고지 의성(외향)과 군위(조모향)지방의 사람을 그 문하에 출입시켰는가 하면, 일찍이 上京從仕하여 남인의 영수로 존재했기 때문에 기호계 남인 가운데도 제자가 있었다. 『西丘全書』 소재 「門賢錄」에 의거 그 문인수를 합산하면 총 118명에 이른다. 이를 출신지역별로 분석해보면 안동 30여명, 상주 30여명, 의성 7명, 군위 3명, 전라도 2명, 친인척측 13명, 기타는 기호지방 출신이었다. 西丘의 학통은 결국 그의 主序 또는 配序 서원인 屏山(안동)·道南(상주)·南溪(군위)·氷山(의성)·三江(龍宮)書院을 중심으로 전수되어 갔던 것이다.

屏山書院의 연혁은 전술한 바이지만 병산서원이 끝내 廬江書院에 병합되지 않고 一邑兩院並序으로 존재한 것은 그 전신인 豐岳書堂의 유래와 豐山士林의 존재를 염두에 두고 고찰할 필요가 있다. 豐山縣은 안동 本邑과 여러 속현 가운데 농업생산력이 가장 높아 麗末 이래 在地士族의 연수가 되어 人材와 仕宦이 가장 많이 나왔고 安東의 역대 鄉案에 등재된 士林도 가장 많았다. 在地品官들은 일찍부터 「豐山縣慶老所品官座目」을 작성하고 慶老禮를 실시해 왔는데 1555년(明宗 10)에 入錄된 회원은 125명이며 西丘는 1572년 座目에 기재되어 있다.³²⁾ 한편 安東府의 초기 향안인 嘉靖鄉案(中宗 25년, 1530) 소재 鄉員 330명을 거주지별로 통계해 보면 府內 21, 府東 36, 府西 39, 府南 24, 府北 34, 臨河 34, 一直

에 의하면 宣祖 40년(1607) 臨河縣西에 臨川鄉社를 세우고 位版을 봉안한데 이어 光海 10년(1618)에 鄭述(寒岡)의 의견에 따라 鄉社를 書院으로 승격시켰고 同 12년에 位版을 兎岡書院에 移奉했다고 하였다(鶴峰集 附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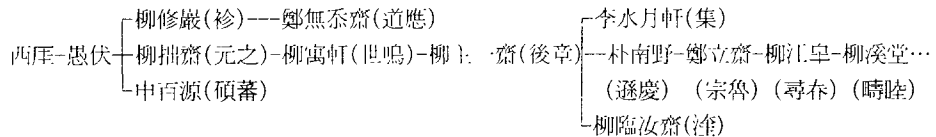
32) 金炫榮, 「豐山慶老所品官座目」(『古文書研究』 2, 1992).

21, 甘泉 19, 奈城 15명인데 비하여 豐山縣은 97명이나 되었고, 萬曆鄉錄草案(光海 7년, 1615)에는 총 264명 가운데 臨河縣이 19명인데 비해 豐山縣은 69명이나 되었다.³³⁾ 대표적인 명문사족으로서는 豐山柳氏를 비롯하여 풍산김씨·안동권씨와 김씨, 順興安氏와 廣州安氏, 禮安李氏·眞城李氏·全義李氏, 慶州李氏, 順天金氏와 光山金氏, 東萊鄭氏와 英陽南氏, 興海裴氏와 延安宋氏 및 巨濟潘氏 등이었다. 이처럼 풍산縣域은 在地土族과 士林의 형세가 강성한 데다가 豐岳書堂이 일찍 설립되어 향중자제 교육과 品官들의 慶老會 장소로 활용되었던 것이며 국가로부터 學田까지 획급받음으로서 나중에 西厓 主후서원으로 발전한 屏山書院은 人的구성과 경제적 기반이 처음부터 강력하였다. 西厓의 학맥은 바로 풍악서당 내지 병산서원을 중심으로 발전해 나갔던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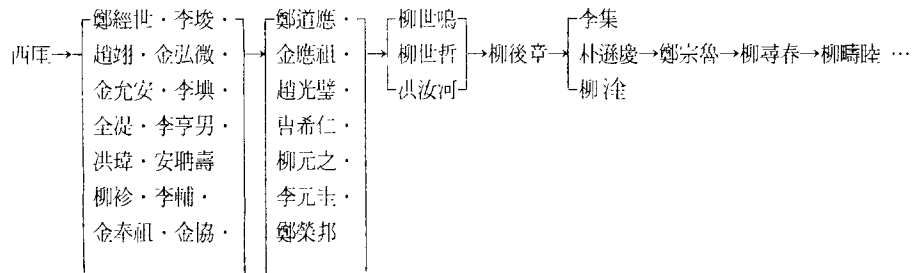
안동에서 퇴계학파의 2대산맥을 형성했던 鶴峰의 학맥은 후인들이 작성한 系譜圖에 의하면

鶴峰—張敬堂—李葛菴—李人山—南損齋—柳定齋 …

로 발전한 데 비하여 서애학맥은 현존 고문서 형태의 淵源圖에 의하면 다음과 같다.³⁴⁾



위 계보도는 너무 단순화시킨 것 같은데 「門賢錄」에 의거 필자 나름대로 서애의 학맥을 다음과 같이 재정리해 보기로 한다.



33) 「嘉靖庚寅鄉錄」(국사편찬위원회 소장)과 「萬曆鄉錄草案」(川前 소재) 참조.

34) 忠孝堂(河回) 소장 淵源圖 및 李佑成, 「韓國儒學史上 退溪學派의 形成과 그 展開」(「韓國의 歷史像」, 創作과 批評社, 1982) p.93 참조

「權紀·張興孝」 「洪鎬」

위와 같이 서애학맥을 계승한 屏山서원계는 道學과 禮學은 물론 經世學과 실용적인 분야에까지 적극적인 관심을 가진 결과 柳紆의 農書와 洪汝河에 의한 국학에 관한 저술이 있었고³⁵⁾ 다른 한편에서는 관료지향성이 강해 韓末까지 仕宦이 계속되었다.

4. 맺음말

이상과 같이 西厓의 학문세계와 學脈에 대하여 필자 나름대로 약술해 보았다. 서애는 조선중기 士林政治史와 壬亂克服史 및 退溪學派에 있어서 중요한 위치를 점함과 동시에 굵직한 足跡을 남기기도 하였다.

조선왕조와 같이 전제군주체제하에서 人物을 논평할 때 일차 책임은 본인의 경륜과 역량에 있다 하더라도 섬긴 군주와의 관계도 무시할 수 없다. 趙光祖와 中宗, 李珣와 宣祖처럼 아무리 탁월한 경륜을 갖고 개혁정치를 펴려고 해도 군주의 신임이 시종일관 뒷받침이 되지 않고는 불가능하다는 사실이다. 선조와 서애의 관계를 시기별로 살펴보면 선조의 변덕스러운 일면을 엿볼 수 있다. 선조 26, 27년 明의 압력으로 禪位문제가 나왔을 때, 선조는 西厓에게 「古語云, 英雄浪死, 以卿之學問才智, 不幸生於此時也」라 든지, 「予之見卿只今日, 夜雖深, 欲與卿面談, 故召之耳 又歎曰卿之才學, 無愧古人, 而但所事者予, 故不能有所爲」라 든지, 「予雖退, 領相在, 國事無可憂矣」라 할 정도로 北人들의 탄핵이 있기 전까지는 전시정국을 거의 서애에게 의존하다시피 하였다. 그러나 선조 31년 북인의 공격으로 파직되자 죽을 때까지 재등용되지 않았으므로 그가 임란극복을 위해 추진했었던 개혁적인 諸施策도 訓練都監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중도에 중지되고 말았다.

西厓의 그 영민한 재질과 온축된 학식 및 탁월한 경륜이 壬亂극복에 일익을 담당했던 것이다. 임란극복의 궁극적인 배경은 무엇보다 조선왕조 기존의 양반지배 체제 내지 在地土族의 鄉村支配체제가 근본적으로 붕괴되지 않은 데다가 亂初에 동요된 민심을 수습하고 당시 在朝·在野세력이 민중을 효과적으로 조직, 동원하여 戰守兩面에 투입할 수 있었기 때문에 마을고을 단위로 창의, 起兵한 의병들이 도처에서 봉기할 수 있었던 것이며, 우리水軍이 해상에서 제해권을 장악할 수 있었고 따라서 明의 원군도 맞이할 수 있었다. 최고 관직을 담당한 西厓가 바로 그러한 기능을 중앙과 지방에서 총괄했던 것이다.

35) 그러한 학문적 저술로서는 柳紆의 『渭濱明農記』와 洪汝河의 『彙纂麗史』·『東國通鑑提綱』·『海東姓苑』 등이 있다.

西厓의 학식과 행적에 대한 당대 또는 후인들의 논평 가운데 몇 개를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西厓訃聞에 따른 『實錄』기사. 「都城各座之民, 無遺會哭於畢寺洞, 數至千餘人 … 各衙門老吏 三十餘人, 亦來會哭, 市民及書吏等, 以木家清貧, 無以治喪, 集布以贈之」(『宣祖實錄』卷211, 宣祖 40년 5월 乙亥條).

柳西厓自少文章學行, 爲一世所推, 雖久爲三公, 清貧如寒士, 爲政公明, 人不敢干以私, 壬辰人亂之後, 公以首相當國, 拮据經營, 焦心竭誠, 凡可以利國家, 不顧人言, 創立都監, 通融軍籍, 改定貢案, 至今賴之」(金時讓, 『洛溪記聞』)

公身都將相, 受命傾覆之際, 見義明臨事正, 盡忠不懈 … 自朝之耆老, 以至宿將舊吏, 莫不曰相國之忠, 而其竭力周旋, 能扶廟社危, 終使王業再安, 生民父子兄弟相保, 至今殮衣日食, 安處樂業, 其誰之力也」(『記言』卷38, 西厓遺事).

이상과 같이 西厓는 사후 문생고리는 물론 일반 市廛民들로부터도 추앙을 받았고 후대기록은 그를 千亂 극복의 제일공로자로 평했던 것이다.

西厓는 退溪의 高弟로서 經史와 文史를 겸비한 정치가 겸 경제학자였다. 그는 소년시절 程朱學과 陸王學을 겸수하였으며 體川검비의 실용적인 학문을 중시하였다. 그가 임란중에 제시한 제시책과 개혁안 가운데 국방·군사적인 개혁안과 貢物作米法·鹽鐵流通議, 中江開市, 設堡屯田策, 신분을 초월한 人才등용책 및 賤隸編軍策 등은 조선후기 實學派의 개혁안과 일맥상통하고 있다. 따라서 西厓는 嶺南學派를 대표하는 진보적인 경제학자로서 위로는 退溪의 학통을 계승하여 아래로는 실학파를 연결하는 교량적인 위치에 있었다고 본다.

西厓의 학맥은 그의 高弟 鄭經世·李埈·全崐·金本祖兄弟·金允安兄弟, 張興孝·權紀·洪瑋·李民奭·鄭允穆·趙亨道·盧景任·李輔·趙翊·李亨男 및 柳紆 등으로 전승되고 다시 손제자적인 鄭道應·柳元之·洪鎬·趙光燦·鄭榮邦 등으로 이어져 계속 확산되었다. 영남학파의 4대 문장가 가운데 金宇顒을 제외하면 정경세·이준·洪汝河 3인은 서애학맥에서 나왔던 것이며, 18세기 '京南'(서울의 南人)의 李萬敷(息山)가 尙州에 낙향하여 權相一 및 安山の 李瀾(星湖), 原州의 丁時翰(愚潭)과 활발한 학문적 교류를 하게 되자 서애학맥의 저변이 더욱 확대되어 나갔다. 서애학맥은 결국 정경세·이준·유진 등을 거쳐 柳元之·洪汝河·柳世喈·柳沔·鄭宗魯·柳尋春·柳時睦 등으로 전승되면서 虎溪書院 중심의 鶴峰學脈과 함께 안동권에서 退溪學派의 2대산맥을 형성했던 것이다.